

글로벌주식팀

서정훈, CFA Senior Analyst
junghun1212.seo@samsung.com

▶ 주요 지표 일일 등락률

S&P500	7,383.74pt	-2.64%
DOW	50,866.78pt	-1.35%
NASDAQ	25,709.43pt	-4.18%
STOXX 600	622.66pt	-0.29%
美 국채 10년물	4.53%	5.65bp
美 국채 2년물	4.15%	10.29bp
달러 인덱스	100.07pt	0.66%
국제유가 (WTI)	90.54\$	-2.69%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큰 폭 하락

필 반도체 지수, 10.3% 하락하며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 기록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지표가 금리인상 전망 강화하며 차익실현 빌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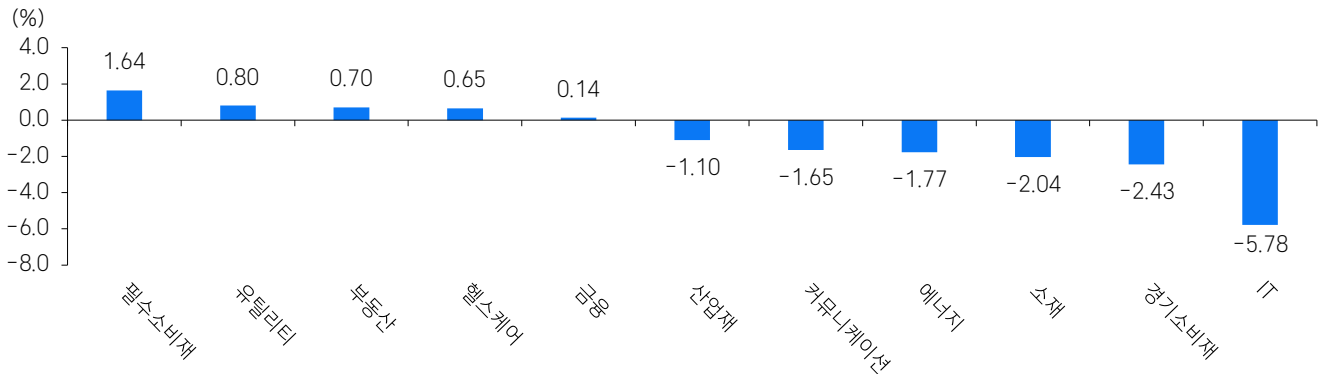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2.64%, DOW는 1.35%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NASDAQ은 4.18% 급락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하루 만에 10.26% 내리면서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섹터가 5.78% 내리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그 뒤를 이어 경기소비재와 소재 업종이 2%대의 낙폭을 나타내며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6%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메타가 5.51%, 아마존이 3.06% 내리는 등 대형 기술주 역시 동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 하락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상보다 견조하게 발표된 5월 고용지표였습니다. 美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17만 2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두 달 치의 집계도 당초보다 9만 3천 명 상향 수정되면서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일자리 창출은 18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이후 가장 강력한 고용 창출 흐름입니다. 견고한 고용시장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의 근원이 될 수 있기에, 해당 결과는 시장의 금리인상 전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당일 미 국채 수익률은 단기물을 중심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고, 달러 역시 강세를 띠는 등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금요일(6.12일) 시총 1.75조 달러 규모의 SpaceX가 상장을 진행한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재차 자극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이를 소화하기 위한 현금 확보는 과정에서 여타 주식들에 매도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마침 이날 메타가 시 투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 주식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시중 유동성 흡수 우려를 키웠습니다.

다만 상기 요인들이 차익실현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훼손하거나 시장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강세는 그만큼 경기가 호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며, 침체 시나리오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 고용지표 강세는 월드컵 특수로 인해 접객업 고용이 늘었다는 일회성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가 유가 상승에 긴밀하게 연동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어질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소식은 긴축 우려를 한결 완화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SpaceX의 750억 달러 규모 IPO 이슈 또한 현재 미국의 MMF 잔고가 8조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 수요일 알파벳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약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주가 낙폭은 2.1% 수준에 그치며 시장 대비 방어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사의 자본 조달에는 보수적 가치투자자로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 달러 규모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3월 말부터 지난주 고점까지 약 95%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기술적 지표에서는 과열 신호가 완연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급격한 상승과 풀림이 누적되어 나타난 변동성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며,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불안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당일 금리 상승에 취약한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 섹터가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은 이번 조정이 순환매 성격이 짙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펀더멘털 훼손이 부재한 종목이라면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종별 수익률



참고: S&P500 GICS Level 1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S&P100 수익률 상하위 종목

▲ UP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프록터 앤 갬블	4.1	필수소비재
2	콜게이트-팜올리브	4.1	필수소비재
3	코카콜라	3.5	필수소비재
4	유니온 퍼시픽	3.2	산업재
5	맥도날드	2.6	자유소비재

▼ DOWN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3	정보기술
2	인텔	-11.3	정보기술
3	퀄컴	-11.0	정보기술
4	AMD	-10.9	정보기술
5	램리서치	-9.8	정보기술

참고: 섹터는 GICS Level 1 섹터 분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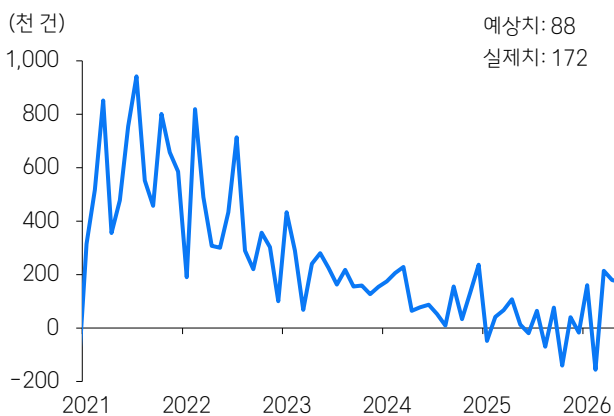
한국 인덱스 관련 지표

지표	수익률	1주일	1개월
MSCI KOREA ETF	-14.11	-14.89	-0.8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26	-5.75	3.78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2.37	-3.15	0.76
MSCI EM ETF	-6.53	-5.85	-3.00
NDF 원화 환율	0.13	-3.33	-5.94

참고: ETF는 iShares ETF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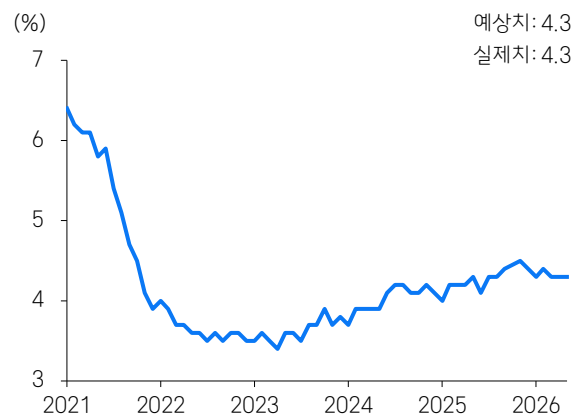
주요 경제 지표

미국 5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변화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5월 실업률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